

지난해 생산 식량작물 12품목 전국에 신속보급

농진청, 벼·밭작물 147품종 4만895kg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품종보호 출원된 '참누리', '보르미'를 포함해 2021년 생산한 식량작물 12품목 147품종 4만895kg을 전국 131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보급된 종자 양은 △벼 87품종 3만 550.2kg △밭작물 11품목 60품종 1만 344.8kg이다.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벼는 611헥타르(ha), 밭작물은 71.3헥타르 재배가 가능한 양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은 406.2헥타르로, 전체 재배면적 682.3헥타르의 59.5퍼센트(%)(벼 57.5, 밭작물 76.9) 수준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품질이 우수한 식량작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

품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래 품종이나 오래된 지역 품종 대체 및 지역 맞춤형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경북 안동에는 오래 재배해온 벼 '일품'을 대체하기 위해 최고품질 품종 '인평'과 밥맛 좋은 복합내병성 '미소진미'를, 전북 지역에는 내병성이 증진된 '참동진'과 2021년 육성된 '참누리'를 각각 보급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오랫동안 재배해온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 신동진의 단점을 보완한 '참동진' 품종 3,000kg을 집중적으로 보급해 신속한 품종 대체가 기대된다.

이 품종들은 모두 2018~2021년 육성

한 신품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별(시군) 최대 1,000kg까지 보급됐다.

밭작물의 경우 품목은 다양하지만 소면적 재배 작물이기에 때문에 보급 경로가 많지 않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2020년 육성된 고구마 '소담미'와 콩 '대장', 2019년 육성된 감자 '물든불' 등을 보급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명갑 과장은 "신품종 보급은 일반 보급종 공급체계를 거치면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신기술 시범사업을 연계한 종자 분양은 전년도에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신속히 보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신품종을 신속히 확산해 품질 높은 식량작물 생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프리카 기어 문제 해결방안 논의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25일 농촌진흥청에서 모마리 탈라 섹(Momari Talla Sek) 세네갈 농업연구청장과 만나 아프리카 기어 문제 해결과 식량자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내 소상공인 위한 특별운영자금 지원

전은, 전북신보와 협약 2억5000만원 특별 출연 대출만기 최대 8년 금리 연 1%대 중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7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별운영자금의 대출만기는 최대 8년, 금리는 현재 연 1%대 중반으로 도내 소상공

인들이 저금리의 운영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북은행은 지난 4월 전북도와 전라북도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총 35억원을 금리 연 1%대 중반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신청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청년나래이음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3차수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나래이음 청년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행동유형 진단, 재테크 전략, 청년들의 개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이미지메이킹 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SNS 활용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등 직무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내용 진행한다.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기업에 1인당 16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제공으로 지역적착도 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2년 근무 시 최대 1,000만 원(2년 근무 후, 3년차 분기별 250만 원 지급)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도내 취업희망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문화여가생활·건강검진비, 취업성공품물지원 등 특별프로그램이 준비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NH스마트뱅킹·올원뱅크 미션을 수행하라

농협은행 전북본부 'NH체크인'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NH스마트뱅킹·올원뱅크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참여할 수 있는 NH체크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19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매주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주카별 미션수행은 1주차 로그인하기 2주차 금융서비스 이용 3주

차 방명록 남기기, 4주차 소원남기기로 진행된다.

응모 고객 중 총 1만2,000명을 추첨해 갤럭시Z 폴드3(1명), 티타셋트

(1명), 음식물처리기(1명), 향수(2명)를 포함해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편의점 쿠폰(1만2,000명) 등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주차별로 사은품이 다르며, 매주 스마트뱅킹·올원뱅크에서 각각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중복참여가 가능하고 미션 수행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 예수병원 이사회 차기 병원장 선출 공모 결정

전주 예수병원은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투표결과 원장 공모안 6표, 재선임 투표안 2표, 기권 1표로 공모가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모는 현 병원장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며, 선출 절차는 31일까지 서류 접수 6월 3일 면접 6월 10일 이사회에서 투표로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현 김철승 병원장은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로 재정 안정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암센터 증축 및 치유의 문주 완공, 전북권 공공어린아재활센터, 권역재활병원 신축, 첨단 전산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스마트 병원의 토대를 단단히 마련했다.

이러한 업적을 갖춘 현 병원장의 공모 참여로 병원 내에 다른 의사들의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장 공모 자격과 제출서류는 예수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윤상 기자

고창 흥덕농협 '사랑의 반찬나눔'

고창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은 지난 24일 오전 흥덕농협 웰컴센터에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고령 독거노인 어르신과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우리 농산물로 밑반찬을 정성과 사랑으로 조리해 전달하는 나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흥덕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명이 행사에 함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5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협의체인 '혁신안전보건허브'에 참여해 7개기관 합동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안전경영 서명식을 열었다

혁신안전보건허브 안전경영 강화 다짐

7개기관 합동 서명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5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협의체인 '혁신안전보건허브'에 참여해 7개기관 합동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안전경영 서명식을 열었다.

혁신안전보건허브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종선),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현기) 등이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안전 문제에 집중되는 가운데, 재해 방지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사업으로 추진됐다.

혁신안전보건허브는 지난 2020년에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소방기구 설치를 지원하고,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안전신호 등 우산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날 참가기관들은 식품연구원의 융합연구용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전달했으며, 이후 각 기관은 도내 총 120곳의 중소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모를 전달하고 안전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안전관리과장은 "혁신안전보건허브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국민의 안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지역의 무재해 달성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안전보건허브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5일 도내 로컬 Job센터, 전북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농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가 구인난 해소 지원 도내 6개 기관 '맞손'

전북인자위·로컬Job센터 등 협약 체결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 위원장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처차 운영 방식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5일 도내 로컬Job센터, 전북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농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도내 농촌 구인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 연계협력과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인자위는 코로나 19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농

가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인력을 확보해 도내 농가에 안정적으로 구직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 로컬 JOB센터와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인자위 백승만 사무국장은 "도내 농가 일손 확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